

해남군 청사 신축 순조...내년 2월 착공

편입부지 시설 철거 완료

이달내 실시설계 마무리

주차장 130면 추가 확충

해남군의 청사 신축사업이 관련 절차를 순조롭게 추진하며 내년 착공에 탄력을 받고 있다.

해남군은 신청사가 건립될 편입토지 내의 건물과 시설에 대한 철거를 완료하고 기본설계도 9월 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신청사 건립을 위한 편입 토지는 48필지 52세대, 지장물 36층으로 지난 28일 마지막 지장물 철거를 완료했다.

123억 여원이 투입해 보상과 주민이주, 지장물 철거가 완료한 해남군은 실시설계와 문화재 조사를 마치는 대로 내년 2월 중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남군이 최근 신청사가 건립될 편입토지 내 건물과 시설물에 대한 철거 작업을 완료했다. 신청사가 들어설 부지 전경. <해남군 제공>

이를 위해 군은 최근 청사 신축 기본설계(안) 보고회를 갖고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보고회에서는 군민소통 공간과 차량 및

보행자 동선, 긴급피난 동선, 사무공간 배치, 주차장 구역, 주변 경관·도로·전선주 등을 면밀하게 검토했다.

또 신청사 주변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지상과 지하에 주차시설 130면 이상을 추가로 확충하고, 신청사 주변 차로를 1차선 확장하는 등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대형버스 주차장을 신설하고 주차타워 건립도 검토해 교통 수요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군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만큼 신청사 건립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안전을 기할 것"이라며 "주민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건립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남군 신청사는 현 청사 위치에 부지면적 2만1521㎡, 연면적 1만6910㎡로 지하1층 지상7층의 규모로 신축된다.

내년 공사에 들어가 2020년 하반기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박태선 농협전남지역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노화카훼리7호' 취항식에서 취항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제공>

완도 넓도~해남 땅끝 카페리 여객선 취항

완도 넓도와 해남 땅끝을 오가는 카페리 여객선이 취항했다.

4일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에 따르면 완도 노화농협(조합장 강홍구)은 최근 완도군 노화를 이복항 선착장에서 '노화카훼리7호' 취항식을 열었다.

이번에 취항한 '노화카훼리 7호'는 선체길이 38m, 너비 11.6m의 250t급 철부선으로, 노화 넓도와 해남땅끝항을 하루 2회 왕복운항한다. 소요시간은 편도 30분이다. 최대 승선인원은 130명이며

차량탑재는 중형승용차 기준 22대로 해당 지역민과 관광객들의 교통편익은 물론, 지역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송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태선 농협 전남지역본부장은 "노화카훼리7호의 취항으로 명절 등 특송기간 원활한 수송능력도 갖추게 됐다"며 "조합원과 고객의 안전을 위해 안전한항 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완도군 재정현황 공개

지난해 살림 5744억원

전년비 305억원 증가

완도군은 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2017년도 결산 기준 재정 현황을 군 홈페이지에 공시했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세입·세출 결산규모와 주요 예산 집행결과와 지방보조금 집행 내역 등 9개 분야 59개 세부 항목을 공동 공시했다.

이번 공시에 따르면 자체 수입과 이전 재원,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를 모두 합한 군의 지난해 살림 규모는 5744억원으로 2016년 대비 305억원이 증가했다. 이 금액은 규모가 비슷한 유사 자치단체의 평균액인 6402억원보다 658억원이 적은 수치다.

완도군 관계자는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완도군의 재정은 인구수나 면적은 타 지자체보다 열악해 재정 규모는 적지만 유사 단체와 비교해 채무액이 없고 효율적인 예산 절감,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 및 투자 심사를 통해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공개-재정공시로 접속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해남군 노후 상수도망 정비 국비 340억원 확보

해남읍·황산·송지 등 4개 읍면

내년부터 4년간 105km 교체

해남군이 노후 상수도망 정비 사업 등을 위한 국비 340억원을 확보해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에 탄력을 받게 됐다.

4일 해남군에 따르면 내년부터 4년간 해남읍을 비롯한 황산, 송지, 문내 등 4개 읍면을 비롯한 황산, 송지, 문내 등 4개 읍면의 상수관로 105km를 교체할 계획이다.

1983년 시설했던 해남군 상수관망은 20년 이상이 지나 노후화되면서 누수량이 늘고 여름철 녹물이 발생하는 등 주민 생활에

어려움이 많다.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유수율이 62%에서 85%까지 높아지고 녹물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도 국비 175억원을 확보,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인 삼산면 일부와 화산면 전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해남군 상수도 보급률은 74%에서 86%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도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국비확보에 나서며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달 7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한 명 군수는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화된 상수도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비 지원을 통한 조속한 사업 추진을 건의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그동안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노후 상수도망을 획기적으로 정비하고 삼산·화산지역에 상수도를 조기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이순신과 진린 420년만의 재회' 학술세미나

10일 완도 장보고기념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주둔한 고금도(완도) 통제영과 조선·명나라 수군의 활동 흔적을 재조명하는 국제학술세미나가 10일 완도에서 개최된다.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는 완도문화원과 함께 이날 완도의 장보고기념관에서 '고금도 통제영과 조명수군 활동 재조명 국제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순신과 진린 420년만의 재회'를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는 이순신의 고금도 주둔 7주갑(420년)을 맞아 통제영으로써의 고금도를 재조명하고, 조명 연합수군의 주둔

지로서의 위상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에서 제장명 순천향대 이순신연구소장은 '이순신의 수군재건 활동과 고금도 통제영' 주제발표를 통해 명랑해전 이후 빈약한 전력의 조선 수군이 고금도 통제영에서 5개월간 수군재건에 힘써 전선 60여 척과 7000여 명의 병력을 확보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예정이다.

이밖에 진금동 중국 광둥성 진린문화연구원 부회장이 '항일총수, 민족의 영웅-명나라 진린(陳璘) 장군을 기리며' 주제발표를 통해 기존 연구자들에게서 발표되지 않은 진린의 일대기를 처음으로 상세하게 소개할 예정이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해남군 감사담당관실에

갑질신고지원센터 설치 운영

해남군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공공분야 갑질행태를 뿌리뽑기 위해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감사담당관실 내에 설치되는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는 피해신고의 접수 처리는 물론 관리·감독, 2차 피해방지 등 사전에 방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단계별 대책을 시행한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우월적 지위와 권한 남용을 통한 부당한 갑질을 겪은 군민은 누구나 해남군청 홈페이지 내 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직원간 갑질도 내부 행정망에 구축된 갑질피해 익명신고망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희망찬 군민, 변영하는 진도 앞당기자"

600여 공직자 참여 월례조회

진도군은 지난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600여명 공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9월 월례조회를 갖고 '희망찬 군민, 변영하는 진도'를 위해 군정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월례조회를 주재한 이동진 군수는 "인사 이동 등으로 인해 국장 조직 신설 등 행정 조직이 대폭 변화됐다"며 "책임과 권한을 준 만큼 역할 분담과 신속한 의사결정 등을 통해 군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더욱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군수는 "지역 발전을 위한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인구 늘리기 등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공직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민선 7기 희망찬 군민, 변영하는 진도 건설을 앞당기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국제수목비엔날레와 명랑대접축제 추진 철저 ▲가을철 농작물 관리와 재난재해 대책 마련 ▲군민행복, 주민감동 친절 행정을 실천해 줄 것 등을 지시했다.

한편 이날 월례조회에서 훈훈한 지역 사회 만들기과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진도를 위해 노력한 30여명의 군정 발전 유공자와 공직자에게 군수 표창을 수여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진도군 군민의 상 후보자 내달 1일까지 공모

진도군이 '2018년도 군민의 상' 선발을 위해 오는 10월 1일까지 후보자를 공모한다.

추천 분야는 ▲공공복리부문 ▲교육·체육·문화·관광·복지·환경 ▲지역개발부문 등 5개 분야이다.

특히 진도군 발전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군민의 표상이 될 만한 수범을 보이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한다.

후보자 추천은 읍·면장과 각급 기관단체의 장이 할 수 있으며, 개인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주민 30명 이상의 연서가

필요하다. 추천된 후보자는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11월 1일 열리는 제43회 진도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1985년부터 현재까지 23명을 시상한 진도군민의 상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상"이라며 "진도군 지역 사회 개발과 교육·문화·예술·군민 화합 등에 모범을 보이는 개인과 단체의 많은 추천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